

2010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주요 내용

(‘12. 1.)

경협기획실

I 주요 내용

1. ODA 지원 현황

- ODA/GNI 비율 : 0.12%, 전년(0.10%) 대비 +0.02%p
- 전체 ODA 규모(순지출) : U\$1,173.8백만, 전년(U\$816.0백만) 대비 +43.8%
 - 총지출 기준 : U\$1,206.4백만, 전년(U\$850.8백만)대비 +41.8%
 - 약정 기준 : U\$1,996.3백만, 전년(U\$1,980.1백만)대비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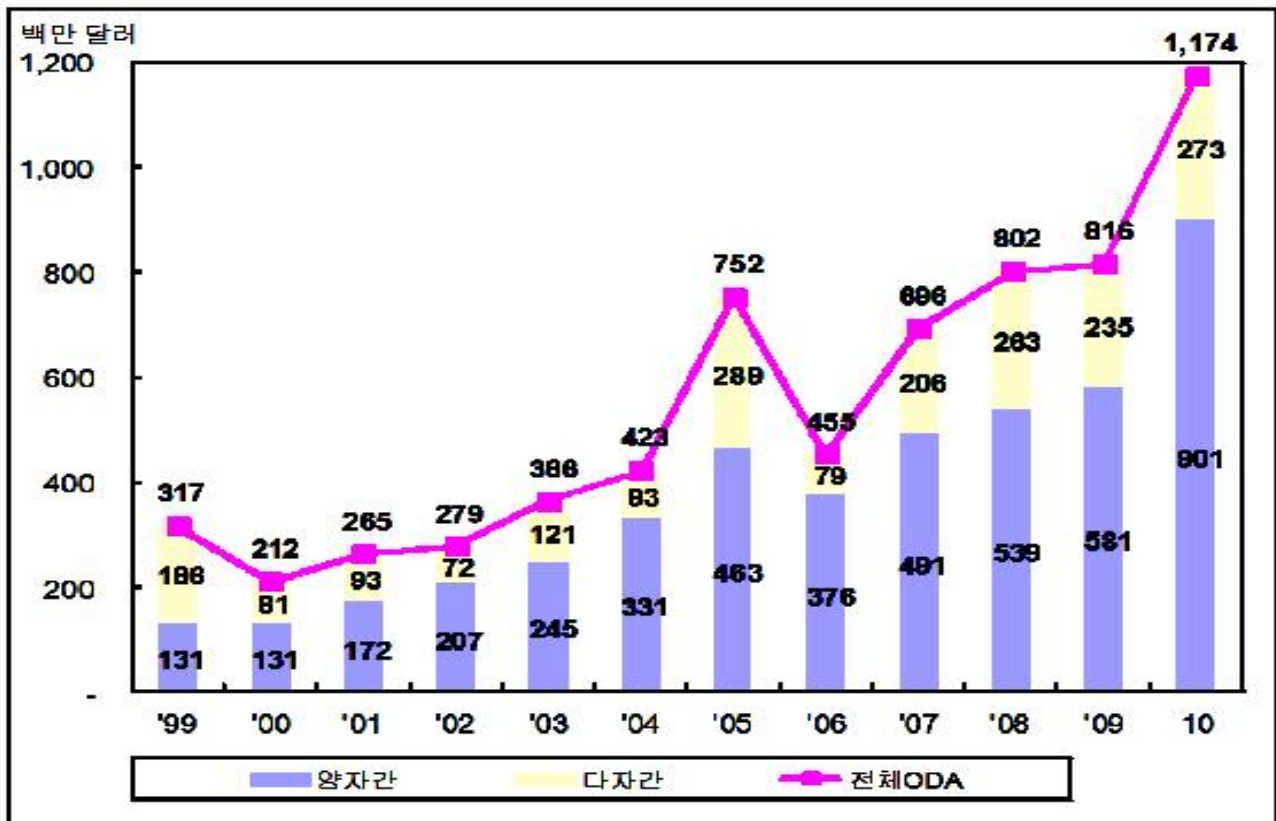
2. 양자간/다자간 원조 현황

- 양자간 원조 : U\$900.6백만(전체 ODA 중 76.7%), 전년대비 +55.0%
 - 무상협력 : U\$573.9백만(양자간 원조 중 63.7%), 전년대비 +56.3%
 - KOICA 무상협력 : U\$448.9백만, 전년대비 +64.5%
 - 양허성차관(EDCF) : U\$326.7백만(양자간 원조 중 36.3%), 전년대비 +52.6%
- 다자간 원조 : U\$273.2백만(전체 ODA 중 23.3%), 전년대비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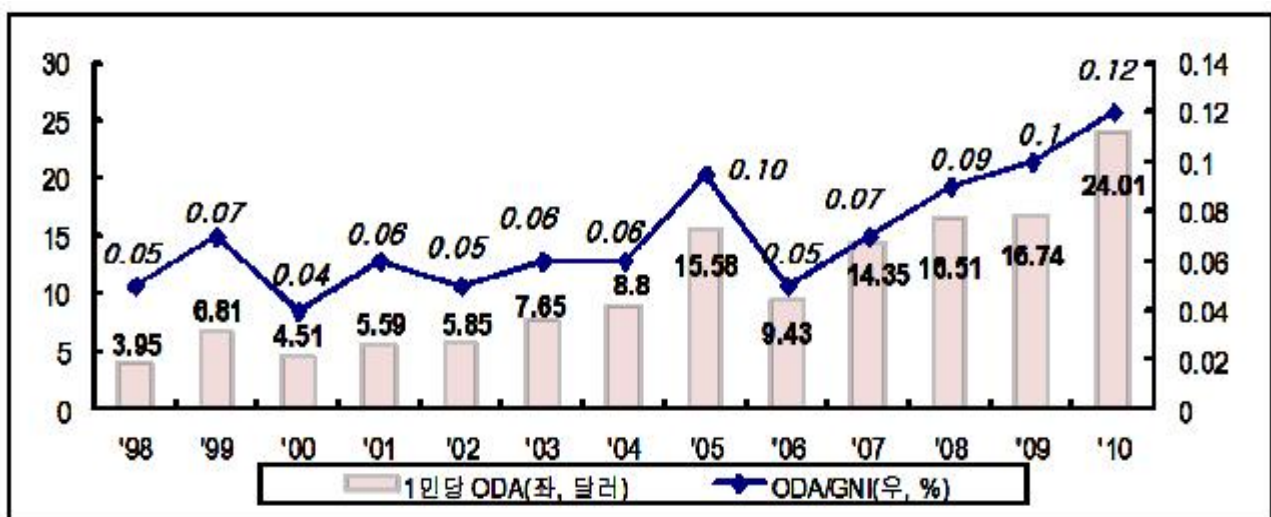
‘10년도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현황

(순지출, U\$백만)				
구 성 항 목	2009년	2010년	증감율(%)	비중(%)
ODA (A+B)	816.04	1,173.79	43.8	100.0
양자간 ODA (A)	581.10	900.63	55.0	76.7
무상원조	366.97	573.89	56.3	양자 중: 63.7
(KOICA)	(272.83)	(448.92)	64.5	(무상 중: 78.2)
유상원조(EDCF)	214.13	326.74	52.6	양자 중: 36.3
다자간 ODA (B)	234.94	273.15	16.3	23.3
(한국은행)	(153.65)	(143.78)	-6.4	(다자 중: 52.6)
ODA(총지출)	850.75	1,206.39	41.8	-
ODA/GNI(%)	0.10	0.12	0.02%p	-
적용 환율(원/달러)	1,273.9	1,155.4	-	-

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 (순지출 기준)



ODA/GNI 비율 및 1인당 ODA 추이 (순지출기준)



II 양자간 원조 현황

1. 원조형태별 현황

□ 양자간 원조 : U\$900.6백만, 전년(581.1백만)대비 +55.0%

○ 무상협력 : U\$573.9백만, 전년(U\$367.0백만)대비 +56.3%

- 기관별로는 KOICA(78.2%), 교육과학기술부(5.2%), 외교통상부(3.2%), 기획재정부(2.9%), 행정안전부(1.8%) 등 5개 기관(부처) 지원액이 전체 무상협력의 91.4% 차지

· 무상원조 중 KOICA 지원 비중 : 74.3%('09) ⇒ 78.2%('10)

- 지원 형태별로는 기술협력(U\$104.4백만)과 프로젝트 원조(U\$342.3백만)가 전체의 67.8% 차지

○ 양허성차관(EDCF)(순지출) : U\$326.7백만, 전년(U\$214.1백만)대비 +52.6%

- 양자간 원조 중 양허성차관 비중 : 36.8%('09) → 36.3%('10)

- 양허성차관(총지출) : U\$359.4백만, 전년(U\$248.8백만)대비 +44.5%

- 양허성차관(약정) : U\$1,091.3백만, 전년(U\$1,067.1백만)대비 +2.3%

- '07년 이후 양허성차관 약정 규모가 증가*하면서 약정후 다년간 지출이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출 규모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U\$584.2백만('07) → U\$967.8백만('08) → U\$1,067.1백만('09) → U\$1,091.3백만('10)

원조형태별 ODA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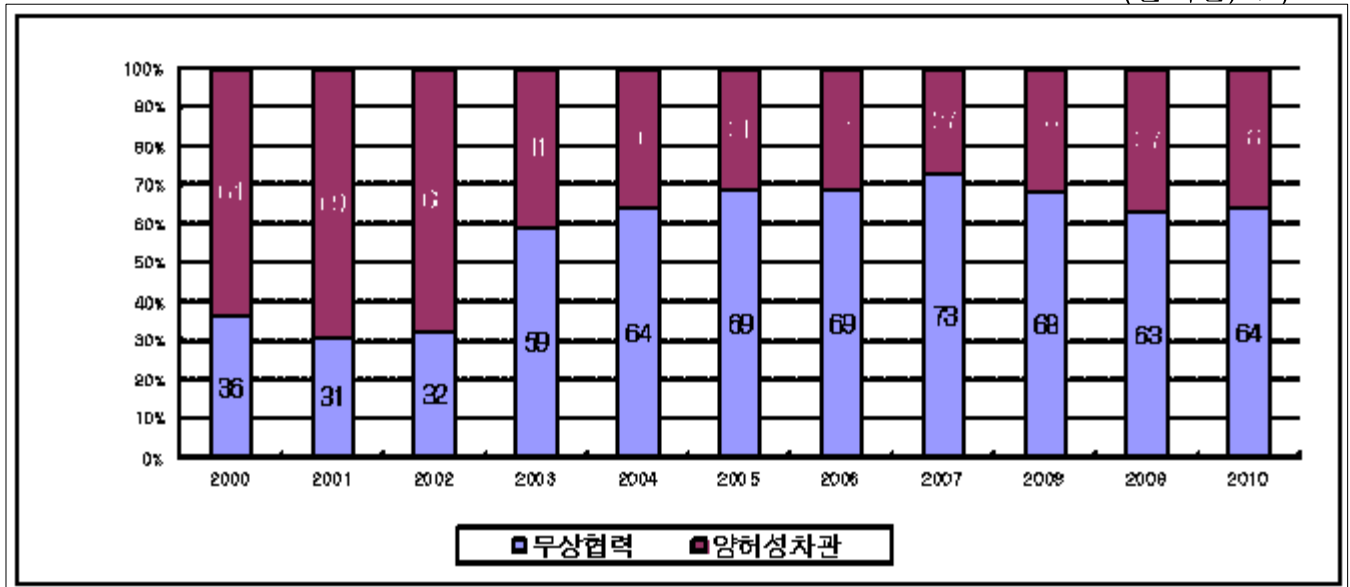
(순지출, U\$백만)

양자 원조	무 상 원 조									유 상 원 조		
	프로젝트원조	예산지원	기술협력	유학생지원	NGO지원	개발인식증진	행정비용	국제기구지원	소계	프로젝트원조	채무재조정	소계
901	342	-	104	55	9	5	38	20	574	325	2*	327
다자 원조	출자 · 출연									양허성 차관		
	UN 기구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기타	소계			
		IDA	기타	ADB/A DF	IDB	AfDB / AfDf	기타					
273	77	79	32	43	8	14	1	19	273	-		

*가나 정유제품저장소 사업 및 LPG용기 제조 사업

양자간 무상협력과 양허성차관 비중 추이

(순지출, %)



2. 지역별 현황

□ '10년 양자간 원조 중 65.2%가 아시아에 지원되었으며, 아프리카 (15.5%), 중남미(7.2%) 등이 그 뒤를 이음

○ '10년 아시아 비중은 증가, 아프리카 비중은 소폭 감소

- 아시아(%) : 60.5('06) → 61.2('07) → 52.2('08) → 53.9('09) → 65.2('10)
- 아프리카(%) : 12.7('06) → 14.3('07) → 19.3('08) → 16.3%('09) → 15.5('10)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규모

(순지출, U\$백만)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대양주	미배분	합계
무상원조	341.3	101.4	55.0	5.9	5.6	64.7	573.9
유상원조	246.0	38.5	9.4	32.9	0.0	-	326.7
합 계	587.3	139.9	64.4	38.8	5.6	64.7	900.6
(비중:%)	(65.2)	(15.5)	(7.2)	(4.3)	(0.6)	(7.2)	(100)

3. 국가별 현황

- 베트남(전년도 최대수원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양자간 원조의 10.6%(무상협력의 9.9%, 양허성차관의 11.1%)를 차지하였고, 아프가니스탄(10.4%)*, 방글라데시(6.1%) 등이 그 뒤를 이음

*'10년도 아프가니스탄 평화구출사업(지역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무상지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11년도 예상소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수원규모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한 상위 9개국(전체 양자간 원조의 50.4% 차지)

양자간 ODA의 주요 국가별 지원규모

(순지출, US\$백만)

순위	국가	양자간 원조	무상협력	양허성차관	(비중,%)
1	베트남	96.0	32.4	63.6	10.6
2	아프가니스탄	93.7	93.7	-	10.4
3	방글라데시	54.7	9.2	45.4	6.1
4	스리랑카	43.5	11.6	31.9	4.8
5	몽골	39.1	29.0	10.1	4.3
6	캄보디아	37.3	19.1	18.2	4.1
7	우즈베키스탄	32.2	11.9	20.3	3.6
8	필리핀	29.5	10.0	19.5	3.3
9	라오스	27.8	14.1	13.7	3.1
1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5.1	0.0	25.1	2.8
전체 양자간 원조		900.6	326.7	573.9	100

지원형태별 주요 국가 지원 규모

(순지출, US\$백만)

순위	무상협력		양허성차관	
	국 가	금액	국 가	금액
1	아프가니스탄	93.7	베트남	63.6
2	베트남	32.4	방글라데시	45.4
3	몽골	29.0	스리랑카	31.9
4	필리핀	19.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5.1
5	캄보디아	19.1	우즈베키스탄	20.3

4. 소득그룹별 현황

- 양자간 원조의 37.0%가 최빈개도국, 31.1%가 하위중소득국에 지원
 - 아프리카 지원 확대 기조에 따라 하위중소득국 지원비중은 감소, 최빈국 지원비중은 증가
 - 하위중소득국 지원비중(%) 추이 : 46.4('07) → 38.5('08) → 35.1('09) → 31.1('10)
 - 최빈국 지원비중(%) 추이 : 24.7('07) → 26.8('08) → 27.7('09) → 37.0('10)
 - 무상협력(36.1%) 및 양허성차관(38.7%) 모두 최빈개도국 비중이 가장 큼
- 양허성차관 : 지출 규모 증가에 따라 상위중소득국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지원 규모 증가
 - 최빈국 : U\$126.3백만, 전년(U\$74.7백만)대비 +40.9%
 - 기타저소득국 : U\$98.4백만, 전년(U\$31.5백만)대비 +212.4%
 - 하위중소득국 : U\$96.1백만, 전년(U\$86.9백만)대비 +10.6%
 - 상위중소득국 : U\$5.9백만, 전년(U\$21.1백만)대비 △72.0%
- 무상협력 : 최빈국 및 하위중소득국 지원 감소, 기타저소득국 지원 증가
 - 최빈국 : U\$207.1백만, 전년(U\$86.5백만)대비 +139.4%
 - 기타저소득국 : U\$69.8백만, 전년(U\$45.0백만)대비 +55.1%
 - 하위중소득국 : U\$184.2백만, 전년(U\$117.3백만)대비 +57.0%

'10년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순지출)

(U\$백만, %)				
구 분(1인당 GNI)	무상협력	양허성차관	합계	비중(%)
최빈개도국(UN분류)	207.1	126.3	333.4	37.0
기타저소득국(U\$1,005이하)	69.8	98.4	168.3	18.7
하위중소득국(U\$3,975이하)	184.2	96.1	280.3	31.1
상위중소득국(U\$6,925이하)	16.5	5.9	22.4	2.5
소득 미배분	96.2	-	96.2	10.7
합계	573.9	326.7	900.6	100.0

5. 분야별 현황[약정기준]

□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50.1%)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33.7%)에 대한 지원이 전체 양자간 ODA의 83.8%를 차지

○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 **U\$905.8백만**, 전년(U\$402.4백만)대비 125.1%

- 그 중 교육 분야가 **U\$324.4백만**으로 전년(U\$139.0백만)대비 133.3% 증가하였고, 지원비중은 35.8%로 가장 크며, 수자원·위생 분야가 U\$283.2백만(31.3%)으로 뒤를 이음

• EDCF 교육 분야 지원규모 : U\$154.6백만, 전년(U\$77.9백만)대비 +98.5%

• KOICA 교육 분야 지원규모 : U\$139.5백만, 전년(U\$41.4백만)대비 +237.0%

- 지난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보건 분야는 U\$131.3백만으로 전년(U\$150.1백만)대비 △12.5%

• EDCF 보건 지원규모 : U\$57.0백만, 전년(U\$110.5백만)대비 △48.4%

○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 **U\$610.4백만**, 전년(U\$876.6백만)대비 △30.4%

- 그 중 교통 분야는 **U\$370.5백만**으로 전년(U\$641.2백만)대비 42.2% 감소하였으나, 지원비중은 60.7%로 가장 크며, 에너지(30.3%), 통신(8.1%)이 그 뒤를 이음

• EDCF 교통 분야 지원규모 : U\$83.1백만, 전년(U\$353.1백만)대비 △76.5%

양자간 원조의 분야별 지원규모

(승인, U\$백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410.5	696.0	402.4	905.8
교육	160.2	112.5	139.0	324.4
보건	110.8	238.2	150.1	131.3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1.5	20.1	3.5	5.1
수자원 및 위생	74.5	269.7	70.7	283.2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57.2	43.5	25.9	153.7
기타	6.4	12.0	13.2	8.2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402.9	544.5	876.6	610.4
교통	235.9	268.3	641.2	370.5
통신	88.2	91.3	114.7	49.3
에너지	74.6	182.0	119.1	184.8
금융 서비스	3.1	2.0	1.1	2.6
기타	1.0	0.9	0.5	3.1
생산	129.0	77.4	57.2	100.4
농업·임업·수산업	106.9	47.7	37.7	91.7
산업·광업·건설	12.4	19.5	17.1	6.6
통상정책 및 조정	5.8	9.7	2.0	1.9
관광	3.9	0.5	0.4	0.3
다분야	31.8	24.5	59.0	117.6
인도적 지원	35.5	55.8	14.1	20.7
행정비용	31.5	31.5	27.8	38.4
NGO 지원	6.8	9.1	7.8	-
기타	4.9	4.2	5.3	16.3
합 계	1,053.3	1,455.0	1,450.2	1,809.6

III 다자간 원조 현황

- 다자간 원조(순지출) : U\$273.2백만, 전년(U\$234.9백만)대비 +16.3%
- 국제금융기구 : U\$177.3백만(64.9%), 전년(U\$161.9백만)대비 +9.5%
 - 세계은행그룹 : U\$110.8백만, 전년(U\$93.2백만)대비 +18.8%
 - 지역개발은행 : U\$66.5백만, 전년(U\$68.7백만)대비 △3.2%
- UN기구 지원 : U\$77.4백만(28.3%), 전년(U\$55.8백만) 대비 +38.7%

IV 비구속성 현황

- 비구속성 원조* 비율 : 35.7%, 전년(48.4%)대비 △12.7%p

* 전체 양자간 원조 중 기술협력 및 행정비용 제외

- 무상협력 : 46.3%, 전년(73.9%)대비 △27.6%p
 - 아프가니스탄 앞 자금 대부분이 구속성 원조로 구성, 전년대비 감소폭 증가
- 양허성차관 : 30.9%, 전년(43.5%) 대비 △12.6%p
 -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 U\$334.6백만 (채무재조정은 U\$2.4백만)
 - 현지화 소요비용 : U\$319.4백만('08) → U\$444.5백만('09) → U\$334.6백만('10)
 - (참고) 현지화 소요비용은 DAC 통계정의에 따라 비구속성으로 분류

구속성 여부에 따른 양자간 ODA 지원규모

(약정 기준, U\$백만)

구 분		'09		'1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양자간 ODA ¹⁾	비구속성	614.6	48.4	567.5	35.7
	구속성 ²⁾	655.5	51.6	1,022.1	64.3
	총 계	1,270.1	100.0	1,589.6	100.0
무상 구분		금액	무상내 비율	금액	무상내 비율
무 상	비구속성	150.1	73.9	230.6	46.3
	구속성 ²⁾	52.9	26.1	267.8	53.7
	무상 소계	203.0	100.0	498.3	100.0
유상 구분		금액	유상내 비율	금액	유상내 비율
유 상	비구속성	464.5	43.5	337.0	30.9
	구속성 ²⁾	602.6	56.5	754.3	69.1
	유상 소계	1,067.1	100.0	1,091.3	100.0

주 : 1) 기술협력 및 행정비용 제외

2) 부분 비구속성 금액 포함

□ 최빈국 및 non-LDC HIPC에 대한 비구속성 비율 : 25.4%

○ 무상협력 : 48.3%(U\$96.8백만)

○ 양허성차관 : 51.7%(U\$103.6백만)

최빈국 및 non-LDC HIPC에 대한 비구속성 금액 및 비중

(U\$백만, %)

	무상협력	양허성차관	합 계
비구속성	96.8	103.6	200.4
구 속 성	183.2	405.9	589.1
합 계	280.0	509.5	789.5

<붙임> : 2010년도 OECD/DAC의 ODA 확정통계. 끝.

(붙임)

2010년 OECD/DAC의 ODA 확정통계

(백만불, %)

OECD	국가	2010년도		2009년도	
		ODA	ODA/GNI	ODA	ODA/GNI
DAC 회원국	미국	30,353	0.21	28,831	0.21
	영국	13,053	0.57	11,283	0.51
	독일	12,985	0.39	12,079	0.35
	프랑스	12,915	0.50	12,600	0.47
	일본	11,054	0.20	9,457	0.18
	네덜란드	6,357	0.81	6,426	0.82
	스페인	5,949	0.43	6,584	0.46
	캐나다	5,201	0.34	4,000	0.30
	노르웨이	4,579	1.10	4,086	1.06
	스웨덴	4,533	0.97	4,548	1.12
	호주	3,826	0.32	2,762	0.29
	벨기에	3,003	0.64	2,610	0.55
	이탈리아	2,996	0.15	3,297	0.16
	덴마크	2,871	0.91	2,810	0.88
	스위스	2,300	0.40	2,310	0.45
	핀란드	1,333	0.55	1,290	0.54
	오스트리아	1,208	0.32	1,142	0.30
	한국	1,174	0.12	816	0.10
	아일랜드	895	0.52	1,006	0.54
	포르투갈	649	0.29	513	0.23
	그리스	508	0.17	607	0.19
	룩셈부르크	403	1.05	415	1.04
	뉴질랜드	342	0.26	309	0.28
	DAC전체	128,492	0.32	119,781	0.31
DAC 비회원국	터키	967	0.13	707	0.11
	에스토니아	19	0.10	18	0.10
	폴란드	378	0.08	375	0.09
	체코	228	0.13	215	0.12
	이스라엘	145	0.07	124	0.06
	헝가리	114	0.09	117	0.10
	슬로바키아	74	0.09	75	0.09
	슬로베니아	59	0.13	71	0.15
	아이슬란드	29	0.28	35	0.35